

“盧 전 대통령도 2%에서 시작 ... 경선은 이제부터”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4>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 출신 혁신가답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공동경선, 공동정부 구성'의 화두를 던졌다. 야권이 서로 기득권 포기하며 쫓돌로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모아 혁신 정부를 만드는 '역사의 드라마'를 쓰자는 것이다.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 공동 정부를 구성한다면 국회 의석도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냉혹한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꿈같은 얘기지만 성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동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모이면 되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꿈을 토대로 서울시장을 연임하며 시민이 함께하는, 체온이 느껴지는 시장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획기적인 회의하기 좋은 도시 세계 1위, 부자 여행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도시 1위, 전자정부도시 1위, MICE 부문 세계 3위, 떠오르는 금융도시 7위, 도시경쟁력 6위 등이 5년 동안 이룬 구체적 성과다.

17일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대선 주자로서 준비된 비전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얘기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분부장

- 대선에 나선 이유는.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있고 쫓돌 민심을 통해서 낡은 정치 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강력한 국민 요구가 있다. 지난 서울시장 5년, 그 이전에는 시민사회활동 등을 통해 혁신가의 삶을 살아왔다. 대한민국의 혁신에 역할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됐다.

- 대선 주자로서의 비전은.

▲ 그 사람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봐야 한다. 걸여갈 길은 걸여온 길을 보면 알 수 있다. 과거 인권변호사,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서울시장 5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왔고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요구하고 있는 불평등·불공정·불균형·불통의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역량을 쌓아왔다고 생각한다.

- 지지율이 높지 않다. 경선 및 본선 승리 근거는.

▲ 노무현 전 대통령도 2%에서 시작했다. 경선은 이제 시작이다.

- 야권의 '공동경선과 공동정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 권력의 독식과 기득권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 모순을 낳았다. 지금은 연대와 연정, 협력과 협치가 시대의 화두다. 이대로는 어떤 정권이 탄생해도 소수 정부다. 야권이 이럴 때야말로 단결해야 한다. 통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 결단의 문제다. 그렇게 돼야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정파적인 정계개편·이합집산

국민이 용납 안한다

대세론은 무너지기 위해 있는 것

2019년 개헌·2020년 대선서 적용

다. 이번 선거에서도 확실히 이기는 길이다.

- 공동정부는 연립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건가.

▲ 표현은 다르더라도 결국 야권의 여러 당들이 힘을 합쳐서 민주연합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를 지지하는 국회의석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안정적 정부를 만들 수 있다.

- 결선투표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지지한다. 다만 이번 대선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부·공동경선론이 중요한 거다. 결선투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 밖에 없다.

-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에서 신통치 않은 반응인데.

▲ 1등 하는 정당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2등, 3등하는 정당도 공동정부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 틀만 만든다면, 원하지 않을 리 없다. 다만 야권의 망형 격인 민주당의 열정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각자 가는 것이다.

- 문재인 대세론과 야권 필승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대세론이 지금까지 통한 적 있었나. 대세론은 본래 무너지기 위해 있는 것이다. 대세론과 필승론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심판 받는다.

- 대선 주자로서 문재인 전 대표를 평가한다면.

▲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경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구체적이고 뚜렷한 성과 등이 보이지 않는다. - 제3지대에 대한 입장은.



▲ 현실성이 없지는 않으나 정파적 관점에서 정계개편이나 이합집산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 시대 변화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민의 컨센서스를 담을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각 대선 후보의 공약 안에 담아야 한다. 2019년 대한민국건국 100주년,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에 개헌을 하고, 2020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선거도 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 제 제안이다.

-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 무엇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평적으로는 의회와 총리를 나눌 수도 있고,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 지자체에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평가는.

▲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산이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 아니냐. 하지만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위상을 국가적으로 수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 서울시장 5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이른바 사론구동형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주장했는데, 과거엔 대기업만 앞장서 가는 전론구동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협한 길에

잘 굴러갈 수 있는 사론구동형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복지, 노동이 함께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을 제시했다. 육아수당부터 청년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기초연금에 이르는 것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이, 내수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완성할 때까지 35조가 들어간다.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을 분석해보니 한 56조 4천억 원 정도 추렴할 수 있다.

- 노동 문제는.

▲ 우리나라 노동자가 1800만 명이다.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분들이 결국 경제 전선에서 전사로 열심히 뛰게 만들어야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온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내수 약화다. 중소기업이 어렵게 되면 서 고용을 못하고, 세금도 못 내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때 복지에 투자하고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면 소득과 소비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와 세금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가 되는 것이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 반대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방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사드로서 북 핵을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은 방위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충분한 소통해야 한다. 사드가 아닌 6자 회담 등을 통한 북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남북 관계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 대만과 중국 즉, 양안관계는 이미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로 갔다고

사드 배치로 북핵 해결할 수 없어

6자회담 등 통해 해결책 찾아야

호남은 향토적 문화 자산 풍부

광주 아시아문화 상징 엔진 만들것

본다. 엄청난 경제교역이나 사람 왕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성공단 규모의 남북 경제 특구가 열 개 정도 더 생기고 인프라 투자가 더 이루어진다면, 남북은 평화관계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탈출구는 북방경제, 남북교역이 거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기본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다.

- 호남의 미래를 담보할 비전을 제시하신다면.

▲ 호남은 차별의 역사였다. 그걸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확고한 전환이 필요하다. 서남해안 시대 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또 호남에는 향토,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다. 아시아문화전당도 텅텅 비어있게 할 게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3조를 들여 문화전당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줬다면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같은 재원 규모로 소프트웨어 재단을 만들어 광주를 아시아 문화를 리드하는 엔진으로 만들겠다.

- 구체적 방법론은.

▲ 자신의 정체성, 장점을 가지고 승부해야 한다. 남 파라가면 2등밖에 못한다. 아무래도 안 된다. 자기 것을 가지고 승부하면 세계 1등, 일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호남이 가진 것으로 승부해야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548,000~
838,000~
838,000~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168,000~
1,168,000~
1,298,000~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388,000~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관광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유틸 중심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보험(해외여행:1억 국내여행: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컨테이너/전차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증보험 가입업체 ●역사적 계약사(해소규정) 및 일정표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경비(호텔,기사/가이드교통사료,선박관광,각국 비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